

http://dx.doi.org/10.17703/JCCT.2022.8.5.437

JCCT 2022-9-53

한국 근대말 운동회의 다양성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Diversity of Sports Meetings in the Late Modern Period of Korea

신의연*, 김연수**, 정호택***

Shin eui-yun*, Kim Youn-soo**, Jung ho-taek***

요약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근대말 학교운동회, 학교들 연합운동회, 그리고 사회단체의 운동회의 개최 상황과 그 다양성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연구방법은 당시의 신문기사 자료를 검색하여 대표적 운동회의 당시 실제 기사를 자료로 하였다. 결론으로는 근대의 운동회는 우리나라 근대체육의 시작과 발전의 산실이었고, 우리의 선입견과 달리 민족주의적 성격만이 아닌 여러 성격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당시 사회단체의 운동회를 기사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운동회 주관단체도 근대체육 수용의 선구적 단체인 황성기독교 청년회 운동회만이 아닌, 일반 여성단체, 노동조합의 성격의 노동자 운동회도 개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한체육구락부의 창립직후 결의를 다지는 운동회, 순천 부인회의 서현여자학교 운동회 주관, 경성 급수상들의 운동회, 현재의 동문 운동회에 비견되는 서북학생 친목회 등의 운동회들이 개최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들 사회단체 운동회의 다양성을 부각시키며, 동시에 가장 많이 열렸던 학교 운동회와 학교간 연합운동회가 우리나라의 근대 체육의 발전과 사회체육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국내의 여러 체육대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서술하였다.

주요어 : 학교운동회, 학교간 연합운동회, 사회단체 운동회, 급수상 운동회

Abstract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us of the school sports meeting, school union sports meeting, and social organization sports meeting in the late modern period of Korea was described. Among them, the most held school sports meeting was the birthplace of the beginning and development of modern sports in Korea. And it played a decisive role in promoting physical education in the modern sense to society. The school union sports meeting was initially held for government and imperial purposes, but since 1905, the scale and number of private schools across the country have increased as many private schools have attended sports meetings. It can be seen that these school sports meetings and school union sports meetings had very clear patriotic, ethnic, and enlightening characteristics. Finally, looking at the representative social organization sports meetings in records such as newspapers at the time, it can be seen that their personalities were very diverse. In addition, sports meeting of local women's association, sports meeting of Gyeongseong water supply merchants, and current alumni sports meeting were held. These social organization sports meetings and school union sports meeting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modern sports and social sports in Korea. More importantly, these sports events developed more and more, which led to the development of various sports competitions.

Key words : Sports meeting of school the late Joseon Dynasty, School union sports meeting, Social organization sports meeting, Gyeongseong water supply sports meeting

*정회원, 한일장신대 운동처방재활학과 조교수 (주저자, 교신저자) Received: August 30, 2022 / Revised: September 5, 2022

**정회원, 한일장신대 운동처방재활학과 조교수 (공동저자) Accepted: September 9, 2022

***준회원, 한일장신대, 대학원 체육학전공 박사과정 (공동저자) *Corresponding Author: yilian@hanmail.net

접수일: 2022년 8월 30일, 수정완료일: 2022년 9월 5일

Dept. of Exercise Rehabilitation, Hanil Univ, Korea

게재확정일: 2022년 9월 9일

I. 서론

우리나라 근대말에 열렸던 서구의 체육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킨 것은 학교체육의 역할이 가장 컸다. 처음에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체육 기피 현상이 심했으나, 점차 체육활동의 체험을 통하여 학생들과 부모의 인식이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학교 체육활동을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회체육의 개념을 몸으로 습득하게 한 계기중 하나가 바로 운동회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한국 근대 운동회에 대한 연구는 충분한 연구 가치를 지닌 것이며, 비단 체육활동 자체에 대한 연구만이 아니라, 당시 시민의식이 근대에서 현대로 도약하게 된 계기중 하나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가치는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학교 운동회를 통해 학생들 다수가 다양한 신체 활동에 적극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학교 밖 사회인들에게는 근대 체육활동에 대한 간접 학습의 계기가 되었다. 이 운동회에 참여하는 학생과 관중으로 참여했던 시민들은 일제의 국권 박탈 위기상황에서 민족의식이 각성되었고, 울분에 차있던 조선인들의 단합과 분출을 외치게 되었다.

지금은 한국 체육사에서 1895년 4월 한국인 金允植의 기록을 토대로 을미의숙에서 열린 운동회를 우리나라 최초의 운동회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나현성의 《한국운동경기사》(1958)는 1896년 5월 5일에 보도된 독립신문 기사를 인용하며, 1896년 5월 2일 개최된 관립 영어학교 花柳會가 최초의 운동회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50년 넘도록 나현성의 1896년 최초의 花柳會 운동회설은 한국의 체육사학계의 정설로 인정받았다. 그러다가 2009년 손환·박상석은 김윤식의 일기 《續陰晴史》에서 주장한대로 ‘을미의숙’에서 1895년 4월 18일에 한국 최초의 운동회가 열렸다고 주장하게 된다 [1].

II. 선행연구

우리나라 근대말 운동회에 관해서는 적지 않은 선행 연구가 있다. 최근 연구논문으로는 박상석의 박사논문 《구한말 운동회 연구》(중양대학교 박사논문, 2012)에서는 학교만이 아닌, 사회단체의 운동회, 학교간 연합 운동회 등의 개최 횟수, 운동회속 연설회에 대한 여러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어 그의 박사논문을 정리한 저서 《구한말 운동회 풍경》에서 운동회 개최 현황을 더 보완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첫 운동회인 1895년부터 1910년 한일병합까지의 운동회를 개최 지역, 주관기관, 개최일과 횟수를 보여주었다. 이에 의하면 1895년부터 운동회가 시작되어 1899년까지는 운동회 개최횟수가 한회 10회 이내로 개최되다가 1900년부터 1904년까지 거의 개최되지 않았다. 그리고 1905년부터 다시 운동회가 시작되며, 1906년부터 54회 개최되고 전성기인 1908년에는 161회가 개최되었고 한일강제병합 해인 1910년에는 76회로 감소되었다 [2].

이학래는 그의 저서 『한국근대사 연구』(1990)에서 1896년부터 1910년 사이에 개최된 운동회를 <한말 운동회 개최 일람표>로 발표하였다. 그 역시 이 시기 운동회를 연도별, 주최기관별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 운동회의 특징 중 하나로 학교학생이 중심이 된 운동회지만 본격적인 사회체육보급과 맥을 같이한다는 점을 들었다. [3].

이학래의 <한말 운동회 개최 일람표> 역시 1896년 학교에서 2회 운동회가 개최되었고, 1899년 학교 4곳과 기타 2회의 운동회로 정점에 이르다가 1905년 사회단체 2곳의 운동회로 갑자기 축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뒤 1906년부터 1910년 사이 학교와 사회단체 기타단체의 운동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서술하였다.

이들 연구를 보면 당시 초기 운동회의 대부분이 나라의 독립과 존립 그리고 부국강병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개최되는 운동회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운동회 전후 연설회에 관한 연구, 운동회의 애국가와 운동가에 대한 연구도 매우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 분야의 연구는 이들 운동회가 단순한 체육행사만이 아닌 향촌 사회 통합의 기능과 애국적 민족적 성격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운동회의 군사훈련적인 성격에 대한 연구도 있다. 예를 들어 1908년 6월 12일 통진, 김포, 강화의 학교연합운동회에서는 모의전쟁 성격의 포병, 보병으로 나누어 군사적 성격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국내서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오산학교나 대성학교에서도 체육수업을 강화하였음도 연구되어 있다. 이들 학교의 운동회의 성격에 대해서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강한 군사적 성격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4].

위의 선행 연구를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시기 운동회가 근대 체육의 보급, 강한 국권회복의 성격, 그리고 직간접적인 애국애족 교육의 기능이 있었다.

III. 학교운동회와 학교간 연합운동회

1. 학교 운동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구한말은 조선 말기부터 대한제국이 끝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이를 조선말기라는 표현도 가능하나, 대한 제국의 선포가 있었음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근대말이라 하였다. 이는 1894년 청일전쟁과 1895년 을미사변으로 고종의 아관파천이 시작 시점부터, 일제의 강제 병합인 1910년까지의 약 15년 정도가 해당된다.

1990년에 출판된 이학래의 <<한국 근대사 체육연구>>의 <韓末運動會의 開催現況>이라는 표에서는 1896년부터 1910년까지 총 198건의 운동회가 있었고, 그중 학교주최가 150건, 사회단체의 운동회가 18건, 기타 30건이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인숙은 1993년 그의 박사논문 <대한 제국기의 사회체육 전개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에 관한 연구>에서 모두 217회의 운동회가 개최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후 2013년 한국 체육학회지에 실린 손환·박상석 논문인 <구한말 운동회의 개최실태에 관한 연구>는 총 406회의 운동회가 개최되었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중 학교 주최가 202건, 학교간 연합운동회가 113건, 사회단체 운동회가 72회 개최되었다고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1906년 이후 개인 주최의 운동회가 약 12회가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5].

이후, 박상석은 저서 <<구한말 운동회의 풍경>>에서는 다시 총 494회의 운동회가 개최되었고, 그중 246회가 학교주최 운동회, 학교간 연합운동회가 157건, 사회단체 운동회가 73회라고 말하고 있다.

당시 학교운동회의 성격을 이해하려면, 진행된 연설회 성격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여러 운동회의 연설은 대부분 학교 관계들이 하였다, 예외적으로 1906년 10월 29일 보성학교 운동회에서 학부모 대표 윤치중이 나서서 연설했다는 기록등이 있다. (大韓每日申報, 1906.6.8).

또 다른 운동회 연설회를 살펴보면 서재필을 비롯하여 김규식, 이상재 등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독립 운동가

들이 일선학교의 내빈으로 연설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학교운동회에 일반시민들도 많이 참관하였는데 이들은 운동회를 통해 근대 서구 체육에 대한 간접 경험과 학습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운동회속 연설회를 통해 계몽, 애국, 민족적 교육을 받게 된 것이다. 당시 운동회에는 수많은 관중이 모였고, 많게는 2회 이상의 10만 이상의 관중이 모였다는 기록을 통해 당시의 열기를 짐작할 수 있다.

당시 가장 많이 개최되었던 운동회는 역시 학교 운동회였다. 이들 학생 운동회의 학부모로 또는 지역사회 주민으로 참관한 관중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직접 참여의 기회를 창출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운동회가 사회단체의 운동회로 확장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학교운동회가 사회체육의 진전과 근대 체육의 보급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2. 학교간 연합운동회

원래 학교간 연합 운동회는 당시의 학부가 주관하였다. 그 뒤 재정 등의 문제로 연합운동회 개최 횟수가 둔화되다가 1905년 5월13일, 한성 학부가 주관하는 연합운동회가 다시 등장하였다. 대한제국정부는 국내외적으로 위기의식이 높아지자 1890년대에 활용해 효과를 보았던 대규모 연합운동회를 다시 시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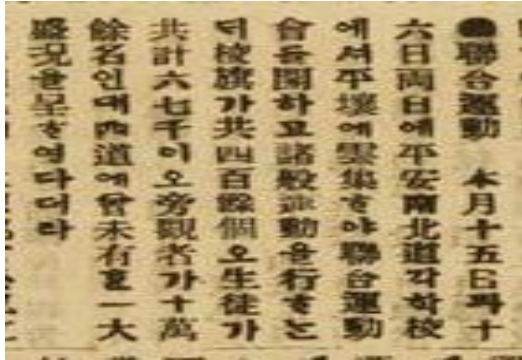
이후에 다시 학교간 연합 운동회 개최횟수는 줄어들었지만, 참여자 수가 늘어난 것은 당시 새로 개교한 사립학교가 많았고, 이들이 운동회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1909년의 경우 사립학교 90여개교, 9천명이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명칭도 나중에는 '관사립 각 학교' 운동회로 바꾸었다 [6].

그러나 1905년부터 일제가 개입하게 되고, 1907년부터는 연합운동회 임원구성에도 관여하였다. 이후 일제는 본격적으로 이들 연합운동회에 직접적 간섭과 통제를 하기 시작하였다. 학부차관이 1908년에 열린 평안 남북도 연합운동회를 참관하고 지방의 운동회의 성격에 의심을 품고 이후 지방학생들이 한성의 연합운동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래의 표 2를 통해 당시 연합운동회의 진행방식과 운동종목을 확인할 수 있다. 1907년부터 연합운동회에서는 민속경기인 씨름과 줄다리가 사라지고, 높이뛰기와 멀리뛰기와 같은 육상경기가 연합운동회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대신 유희적 경기가 등장하여 이 종목을 대체하게 된다.

표 1. 대한매일신보 1908. 4. 22
Table 1. Korea Daily Newspaper 1908. 4. 22



위의 표 1 대한매일신보 1908년 4월 22일 기사에는 연합운동회 개최 기사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聯合運動 本月十五日과 十六日兩日 平安南北道各學校에서 平壤에 雲集하여 聯合運動會를 開하고 諸般運動을 行하느니 校旗가 共四百餘個오 生徒가 共計六七千이오 旁觀者가 十萬餘名인데 西道에 曾未有한 一大盛況을 모히었다더라”

“본월 15일과 16일 이틀간 평안남도 각 학교에서 평양에 운집하여 연합운동회를 열고 여러 운동을 하였는데, 교기가 모두 400여개이며, 생도는 모두 5,6천명이었고, 관중은 10만여 명인데 서도에 일찌기 없었던 일대성황을 이루었다.”

위의 자료를 보면 운동회가 평안남도에서 열리고 참여 학생이 5,6천명이며 관중이 10만이 넘는 대규모 연합 운동회였음을 명확히 소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1909년 4월30일 훈련원에서 열린 관공사립 각 학교 춘기 운동회에 10만 명의 관중이 관광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기록도 있다.

처음에는 이들 학교간 연합운동회도 서구 근대 병식 체조를 수용하고 있고 국력을 강화하며 고종이 대한제국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나중에는 관립학교에서만 실시되는 운동회가 줄어들고, 사립학교에서 개최횟수가 늘어나고, 정부의 지원 없이 관립 공립 사립학교간의 연합운동회도 생겨나게 되었다. 이어 지역 사회내 학교 연합운동회등도 생겨나고, 이는 향후 전국소년체전, 전국 체전 개최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단위학교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여러 학교의 연합운동회는 대회의 규모가 커지고, 경기의 종목도 다양해지게 된다. 아래 표 2는 1907년 5월 개최되었던 관공립사립학교 춘계 연합대운동회의 구체적 절차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당시 운동회의 경기종목과 선수선발 및 경기방식, 국민의례의 성격을 알 수 있다.

표 2.皇城新聞 1907. 5. 3
Table 2. Hwangseong Newspaper 1907. 5. 3

順序	科目	當次隊名
第一	集合整列 (一同敬禮)	全隊
第二	行進 (運動歌)	全隊
第三	聯合體操	全隊
第四	旗取	第四小隊
第五	毬拾	全
第六	破球	各學校二十名式
晝 (休憩)		
第七	各學校 體操	各校任意人員
第八	二人三脚	第二小隊
第九	徒競走	第三小隊
第十	騎馬競走	第一小隊
第十一	職員競走	有志者
第十二	來賓競走	有志者
第十三	優等旗授與	
第十四	行進 (運動歌)	全隊
第十五	整列 (訓辭, 萬歲)	全隊
閉會		

이들 운동회의 성격은 대개 운동종목, 경기 진후 열리는 연설회, 학생들이 부르는 운동가 등으로 알 수 있다. 이들 운동회 연설은 대체적으로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을 기본으로 강조하였다. 다음으로는 애국, 독립, 근면, 문명 진보 등 다양한 주제의 운동회 연설들이 행해졌다. 이는 학교운동회의 특징이기도 하다.

IV. 사회단체의 운동회

당시 사회단체의 운동회는 당시 사회체육보급 실례를 보여주는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연구가 주로

학교운동회와 연합운동회에 편중되어 있다.

이 시기 사회단체가 개최한 운동회는 1990년 이학래의 자료에 의하면, 18건이 있고, 2012년 이후 박상석등의 박사논문에는 72건, 이후 2016년 저서에는 73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2013년에 발간된 『한국 육상경기 100년사』에서는 사회단체의 운동회에 대해서 스포츠의 재미가 알려지면서 관청, 교회, 직장 등에서도 운동회를 개최하기 했으며, 지역별로 운동회 개최 현황을 보면 서울 135회, 황해도 25회, 경기도 15회, 평안도 10회, 경상도 5회, 충청도 4회, 전라도 3회, 함경도 3회, 강원도 2회 등 점차 서울을 벗어나 제주도를 뺀 전국에 걸쳐 열렸다면 훨씬 더 많은 수의 운동회를 언급하고 있다 [7].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들 개최횟수 의미가 중요하지는 않다. 이는 단지 당시 신문 등 기록으로 남아있는 운동회를 횟수를 추적한 것이지, 실제로는 전국적으로 훨씬 더 많은 운동회가 열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록에 남아있는 사회단체의 운동회 중에서 그 성격과 가치에 대해서 대표적 5건의 운동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05년 5월 22일 황성기독교 청년회 운동회, 1906년 6월 10일 대한체육구락부의 운동회, 1908년 5월14일 순천군 서현 여자학회 운동회는 순천군 여학교 운동회, 1908년 6월 3일 서울 독립관에서 개최된 경성내 급수상 운동회, 1910년 5월 22일 호서학생친목회 운동회, 1909년 10월 24일 서북 학생 친목회 운동회를 들 수 있다.

① 황성 기독교 청년회 운동회

먼저, 1905년 5월 22일 황성기독교청년회에서 주관하는 운동회가 열렸다. 기록에 남아있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 3과 같다. 내용을 살펴보면,

“日人表情再昨日 基督青年會에서 新興寺에 運動會를 開會은 已報했거니와 同日上午十時에 開會하고 會長 奇一氏가 大旨를 公佈한 後 讚美歌는 蓮洞中學校生徒, 演說은 金貞植氏, 答辭는 崔炳憲氏, 來賓演說은 訖法氏오 下午一時에 進茶果오 三時에 遊戲運動, 五時에 愛國歌인디 其時에 鍾路藥局하는 日人 小野回生氏夫妻는 治療諸其를 持來하여 運動에 或 受傷者를 一併治療하여 주는디 其우 誠心을 表했야고 또 刻字하는 日人 高橋金吾氏는 圖書二個를 精妙製造했야 運動者에 優等者에게 施賞함을 請했는디 該會에 原施賞外에 特別히 一等 郭漢升氏와 二等 金鍾惠氏에게는 그 圖署를 加賞했었다더라.”

“일본인 표정 이틀전 기독교청년회에서 신흥사에 운동회를 개최 회합은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오전 10시에 개최하고 회장 奇一씨가 큰 의지를 공포하고, 찬미가는 연동중학교 생도, 연설은 김정식씨 답사는 최병헌씨 내빈연설은 흘범씨, 오후1시에 다과를 하고 3시에 유희운동을 하였고, 5시에 애국가를 제창하였는데 그때에 종로약국 일본인 小野回生씨 부부가 치료기기를 가져와 운동 중 부상자들을 치료하여 주었는데, 매우 성심을 들었고, 또 인쇄소하는 일본인 高橋金吾씨가 도서 2개를 정성껏 포장하여 운동 우등자에게 시상하기를 청하였는데, 그때에 원래 시상자외에 특별히 일등한 곽한승씨와 2등 김종덕씨에게 그 도서를 더 시상하였다”

여기에 일본인들이 황성기독교 청년회에 상품을 기증하고 부상자를 치료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철저한 민족적 성격의 운동회로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일본인들의 후원을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 황성신문 1905. 5. 24
 Table 3. Hwangseong Newspaper 1905.5.24



황성기독교 청년회는 1903년 10월 28일 창립하였다. 이때부터 서구의 근대체육을 도입하고 보급하는 일을 주로 하였다. 황성기독교 청년회가 주관하는 운동회는 이후로도 신문 등에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일정에 대한 소개, 연설 등에 대한 내용도 많이 공개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보면 황성 기독교 청년회 운동회는 정기적으로 매년 운동회를 개최되었다. 황성기독교 청년회 운동회는 정례적으로 실시되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회단체의 운동회였음을 알 수 있다.

② 대한 체육구락부 운동회

대한 체육구락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체육 구락부로 유명하다. 1906년 3월 현양운, 신봉휴, 한상우가 창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체육친목단체이다.

이 운동회는 순천군 여학교를 세우고 유지하는 일익을 담당했던 부인회가 또 경비를 부담하여 이들 여학교의 운동회를 주최한 것이다. 물론 여자 부인들의 운동회가 아니라 여학생들의 운동회이지만 이 시기 지방의 여성들이 준비하고 여학생들의 운동이 독자적으로 개최되었다는 점은 우리나라 근대체육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④ 경성 급수상 운동회

이어 주목할만한 특이한 운동회가 기록에 출현하는데, 이는 바로 경성내 급수상들의 운동회였다. 표 6의 기사내용을 보면 약 만명의 급수상이 모였다고 나와 있다.

大韓每日申報 1908년 6월 5일 기사를 보면, 일단 소재명은 ‘水商議決’으로 되어 있다. 이어 장소와 날자는 ‘再昨日의 京城’으로 6월 5일 경성임을 밝히고 있다. 운동에 관한 내용은 매우 짧다. 기사는 ‘汲水商 萬餘名이 運動次로 獨立館에 出往하여 脚戲를 設하고 罷하여 各 歸할제의 汲水商 壹名이 演說하되’ 급수상 즉, 당시 수도시설이 완비되지 않아, 각처에 필요한 물을 배달하는 사람들 만여명이 단합대회처럼 위해 독립관 운동장에 모여 脚戲를 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脚戲는 지금의 씨름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이 씨름대회를 개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운동회가 끝나고 돌아갈 때에 급수상 한명이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사에 실려 있다.

“我等이 本是 北道之人으로 移郷 上京하야 賤待를 甘受하고 汲水 資生 하더니 觀 此形 便은즉 各處의 水桶을 埋設하고 實施되는 日의는 此業도 不遠間 失業하고 未免餓死 할터이니我等의 情熱를 水道局의 壹次 請願하야 失業되지 안도록 허주허야드라”

“우리가 본래 북도사람으로 고향으로 떠나 경성에 와서 천대를 감수하고 급수 장사를 하였는데, 지금 상황은 각처 수통을 매고 다니는 이 일도 조만간 잃게 되고, 굶어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으니, 우리의 속사정을 수도국에 일차로 청원하여 실업되지 않도록 하지 하겠다더라.”

이들 급수상들은 고향을 떠나 경성에서 급수 배달하는 일들을 하는데 조만간 수도관이 매설되면, 자신들이 실직을 할 것이니 수도국에 함께 청원하자는 내용이다. 당시로서는 학교나 기관 그리고 정식 단체가 아닌 급수상

들이 만여명이 모여 운동회를 열고 주 종목으로 씨름대회를 열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더하여 이들이 자신들이 근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실직될 것을 염려하여 미리 준비하자는 매우 적극적 행동실천을 준비하였다는 점도 매우 진취적이다.

표 6. 대한매일신보 1908. 6. 5
 Table 6. Korea Daily Newspaper 1908. 6. 5



이들은 경성시내에 수도시설이 완비되기 전 물을 배달하는 급수상들이었다. 이들이 신분이 높거나 경제적 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모임으로 운동회를 구상하고 실천에 옮겼다는 점을 주목할 만 하다. 또한 이들 급수상들이 운동회를 개최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록에 남지 않은 여러 사회단체의 운동회도 많이 개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의 근대 말 학교에서 운동회가 시작되고, 학교간 연합운동회로 이어졌으며, 대한 구락부와 황성기독교 청년회 같은 단체의 운동회까지 발전되었다. 이에 더하여 당시 사회적 경제적 위치가 낮았던 급수상들이 자신들만의 운동회를 준비하고, 자신들의 처우 개선을 논했던 점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⑤ 서북학생 친목회 운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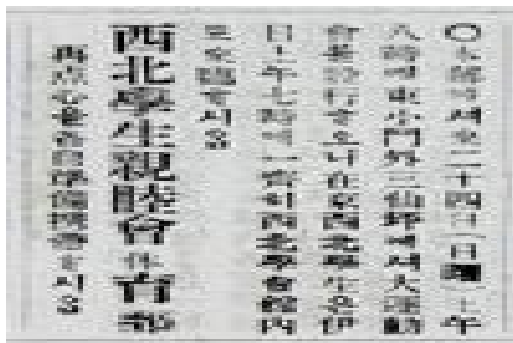
지금의 동문체육대회로 볼 수 있는 운동회가 개최되었음도 알 수 있다. 표 7 황성신문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의 재학생들이 아니라 졸업생들이 모이는 운동회였다. 재경(在京)서북지역 출신학생이라는 설명이 있다. 이들은 1909년 10월 24일에 서울 삼선평에서 열리는 운동회에 대한 광고를 황성신문에 알리며 도시락 지참까지 요구한 것으로 보아,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

들이 모여 장시간 운동회를 개최한 것으로 생각된다.

“本部에서 來二十四日(日曜)上午八時에 東小門外三仙坪에서 大運動會를 設行호오니 在京西北學生은 伊日上午七時에 一齊히 西北學會館內로 來臨호시옵 西北學生親睦會體育部 再點心을 各自準備携帶호시옵”

“본부에서 오는 이십사일(일요일)상오 팔시에 동소문 외 삼선평에서 대운동회를 시행호오니 재경 서북학생은 이날 상오 칠시에 일제히 서북학회 관내로 오시기 바랍니다. 서북학생친목회체육부 (추신) 점심을 각자준비 휴대하시기 바람”

표 7. 황성신문 1909.10.23
Table 7. Hwangseong Newspaper 1909.10.23



위의 서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1905년부터 황성기독교청년회나 대한 체육구락부 같은 주요사회단체의 운동회가 열리기 시작하였고, 이후 동문선후배들의 운동회, 같은 직종의 운동회, 부인들이 후원하는 운동회 등 다양한 계층에서 운동회가 개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V. 결론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근대말 학교운동회, 학교간 연합운동회, 그리고 사회조직의 운동회의 개최현황과 특징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이중에서 가장 많이 개최된 학교운동회는 우리나라 근대체육의 태동과 발전의 산실이었고, 국내에 근대적 의미의 체육을 사회에 보급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학교가 연합운동회는 처음에는 정부주도로 일정 목적을 띠고 개최되었으나, 재정적 어려움과 일체의 탄압으로 동력이 부족하게 되었다. 하지만 1905년 이후 전국에 수많은 사립학교가 세워지고 이들이 학교 간 연합운동회에 참석하면서 그 규모와 횟수가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당시의 신문 등 기록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사회단체의 운동회를 보면, 이들의 성격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근대체육의 발전의 초석이 되었던 황성기독교 청년회의 경우, 매년 정례적인 운동회를 개최하였고, 언론을 통해 잘 공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부 기록을 보면, 당시 철저히 일본인을 배타하지 않았으며, 지역 사회 일본인들의 도움과 기증을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한체육구락부의 창립 직후 결의를 다지는 운동회, 지방 부인회 주관 운동회 개최, 경성 급수상들의 노조 성격을 띤 운동회, 현재의 동문운동회 같은 운동회들이 개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사회단체의 운동회화 학교간 연합운동회는 우리나라의 근대 체육의 발전과, 사회체육의 전파의 역할을 하였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 운동회가 점점 더 발전하여 여러 체육대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이들 운동회가 현대의 도민체전, 전국체전, 소년체전 등으로 발전하는 결정적 발판이 되었다.

References

- [1] Kim Yeon Soo, Shin Eui Yun, Kim Dae Sung,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orts Meeting during the late Chosun”, IJACT (Vol.7 No.4), 2019,12
- [2] Park Sang Seok, *the scenery of Sports Meeting at Late Chosun Dynasty*, Korean Academic Information, 2016
- [3] Lee Hak Rae, “A Study on the History of Modern Physical Education in Korea”, Ji-Sikindustry publisher, 1990.
- [4] Kim Youn Soo · Shin Eui Yun, “A Study on nationalistic character of private school’s military gymnastic education in early modern Korea”,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4, No. 4, 2018.
- [5] Son hwuan · Park sang seok,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Sports meetings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2(3), ppl1-13, 2013,
- [6] Kim Seong Hak, “Integration with the Korean Federation of Public Schools and Civilization”, The Korean Society for History of Education Vol. 35, No. 1, 2013.
- [7] Korea Track and Field Federation, *100 Years of Athletics in Korea*, 62p, 2013,